

[좋은 친구들]

12월호

아직 못다한 그 말, 고마워요.



CONTENTS

M
e
u
t

L
a
o
r

여응 능 늑 네악 땡어 짜란

Volunteer' s Day
인권의 날
Burning stove
한복 색종이 접기
아띠 클래스
쿠키 클래스
아토제나
피룸 송별회
파고다 나들이
프싸 트마이 나들이
유스 송별회

헛 떼?

CDP

릭 리여이 나 츠남 트마이!

김홍네 집들이

개인 에세이



December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청소년캠프 회의 영어수업	2 청소년캠프 학교답사 농부님들 만나뵙기	3 CDP 벗집뿔고 비료재료 구하기 마을아이들 수업	4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5 청소년캠프 숙소찾기 미션!	6 뒤글..
7 CDP 밭갈기 마을 아이들 수업	8 CDP 도랑 만들기	9 CDP 도랑 만들기 살충제, 벚짚, 씨뿌리기	10 인권의 날 행사 참여	11 10기 김은지단원과 품 방문	12 평양랭면관	13 로즈우드
14 피룸 송별회 Goodbye, Phirum 마을아이들 수업	15 우덤&찬리의 즉석 한국어수업	16 Burning Stove 만들기	17 마을아이들 수업	18 양말인형 만들기 페인팅반이랑 놀기	19 프놈펜 나들이	20 자몽청 만들기 맛있어져라♥
21 마을아이들 수업	22 품 들어간 날	23 유스들과 파고다	24 마을아이들 수업	25 Merry Christmas 난리, 페트라와 프싸 트마이 김홍네 집들이	26 사진 인화 자몽잼 실패 :(27 프놈펜 나들이
28 청소년 캠프 회의 마을아이들 수업	29 청소년 캠프 회의 사진전 유스 송별회	30 청소년 캠프 회의 품 학교 방문 한 캔 더!	31 CDP	Good bye December, 2015! & Happy New Year!		



Meut 리어

글쓴이 다솔, 한길, 나래, 종원.

Meut Laor,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정한 우리의 팀 이름, 그리고 보고서의 이름.

4개의 보고서, 4개의 제목, 4명의 글씨가 모여 만들어진 'Meut 리어'

글씨체도, 크기도 모두 다 다르다.

얼핏보니 3개 국어가 섞여 정신사납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기도 하다.

겨우 읽어보니 '뭣 리어' . 그게 뭔데?

크메르어로 또 한번 더 해석해야

4개의 묶음이 좋은 친구라는 하나의 뜻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다.

뜻 하나 알기 참 복잡하고 어렵다.

마치 우리 팀 같다.

다 다른 글자인데 그래도 모아두니 그럴싸하다.

참 다른 4명인데 달라서 나름의 매력이 있다.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며 깐달에 도착했다.

그래서일까, 4개월 함께 사는 게 복잡했다.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동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마을을 이해하고 친구를 만들었다.

4명의 언어로 하나의 이야기가 4개월동안 쓰여졌고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다.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 지 아직 모르겠다.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우리 이야기, 참 복잡하고 어렵다.

다른 사람들은 얼핏 보고,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참 다르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참 복잡하고 어렵게 쓰인 우리 이야기지만

추리고 추리면 결국 4개의 단어만 남지 않을까?

다솔. 한길. 나래. 종원.

여음 능 능 네악 땡어 찌란

We will miss everyone so much.

#13. 라온아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온다간다 말도 없이 유스들이 하나둘 까리따스를 떠났었다. 정말 한번도 다같이 모이는 자리없이 이렇게 끝인걸까? 졸업식같은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 제대로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이별이 아쉬웠고 졸업시험때문에 딱 한 번 모든 유스가 모인다는 소리를 들었다. 덕분에 우리는 하지 못했던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작별인사. 까리따스에서 YDP의 책임자이자 라온아띠를 맡았던 피룸이 7년만에 까리따스를 떠났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란 가사처럼 우리는 마지막을 슬퍼하지 않았다.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유스들과 피룸이 떠났지만 떠나던 날은 언제보다도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다.

12월 4일에 프놈펜에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4일, 프놈펜 기술대학



피룸의 제안으로 우리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열린 국제 포럼에 까리따스의 유스들과 함께 참여했다.



제 5회를 맞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SDGs였다. SDGs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UN 151개국 이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약속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이다. 빈곤퇴치 캠페인을 하면서 한 번 접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SDGs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것은 처음이고 외국인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포럼에 참여하는 것이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통역을 맡아주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도움과 함께 간 유스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 목표 1. 지구상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
-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지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을 보장한다.
-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을 증진한다.
-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한다.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적 거주지를 조성한다.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행동을 긴급하게 조직한다.
-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초지 황폐화를 막고 회복하며 생물 다양성 상실을 중단한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할성화한다.



SDGs에 관한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은 열심히 질의응답을 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강의에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조를 짜서 다시 나누어졌고 각 조 별로 다른 SDGs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 날의 워크숍은 마치 라온아띠 국내교육이 생각났다. 그래서 아띠로서 열심히 잘!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짠뜨리아와 우덤은 짧은 영어로 인해 열심히! 참가했다고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 했던 또 새로운 캄보디아의 현실을 접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지만 그만큼 병원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워크숍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었다. 둘러앉은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했다. 그 중엔 국제학교에서 온 고등학생들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참여해 아띠들을 놀래켰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다른 캄보디아 NGO단체의 부스를 구경하기도 하고 같이 점심도 먹었다.







인권의 날

매년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 캄보디아의 각 시민단체와, 승려, 학생 등 각종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광장에 모여
캄보디아 내 토지, 노동, 민주주의 등 인권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증진의 필요성을 외쳤다.

Meut Laor



12월 10일은 인권의 날로 캄보디아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제정이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 출근시간보다 더 이른 아침부터 모여 유스들과 함께 자유 광장으로 향했다.

인권의 날 행사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크메르어로 거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어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유스들과 함께 짜요!(Victory)를 외치기도 하고 함께 축하공연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만 캄보디아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곳에 와서 살면서 우리는 딱히 그런 문제를 직접 느껴보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행사를 마치고 행진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찰들이 제재를 가하기도 했고 이번에도 다른 곳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많은 경찰들이 나와있었다고 한다. 인권의 날을 맞아 열린 이 행사에 오게 되면서 캄보디아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다.



Burning Stove

꾸미기

캄보디아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거나 모아서 불로 태워 처리한다. 하지만 까리따스에서는 평소 캔과 플라스틱은 따로 버리게끔 쓰레기통을 분리해놓았다. 하지만 캔과 플라스틱을 따로 모아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 다 같이 모아 태우곤 했었다. 하지만 Burning Stove를 만들어 플라스틱은 따로 태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위에 페인팅반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우리는 버닝 스토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벽화에 경험이 많은 페인팅 반에 도움을 요청했다. 페인팅 반 선생님인 쓱씨웃과 페인팅 반 유스들은 흔쾌히 우리를 도와줬다. 쓱씨웃 선생님의 조언 아래 유스들은 우리가 생각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밑바탕을 쓱쓱 그려 나갔다.



밑바탕을 우리와 함께 상의한 후 유스들은 밖으로 나가 분필을 잡고 속속 그리더니 금세 밑바탕을 다 그렸다.



너네 뭐해???

아띠 넷과 페인팅 반 유스들이 다 모여있으니 지나가던 유스들도 와서 구경하고 갔다.



밑바탕을 다 그리고 나서 유스들은 우리에게 붓을 하나씩 주면서 색칠해보라고 했다. 망치지만 말자는 마음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유스들의 도움아래 그리기 시작했다.



이거 그려볼 사람?
 나! 근데 그냥 이렇게 칠하면 돼?
 응응 그냥 그 색으로 여기 한 번 다 칠해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응?? 뭔가 다른데.. 망친 것 같아..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유스들은 남다른 붓터치로 우리가 칠해둔 평면적인 그림에 입체감을 살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못 그려둔 것도 금방 되살려냈다..!
 섬세한 부분의 그림도 무심한 듯 툭툭 두드리면 금방 완성됐다.



어떻게 세 가지 색으로
저렇게 자기가 딱 원하는 색을
만들어낼 수 있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애.



이것도 결국 재능이야, 재능.
이게 뭐냐?

아닌데!!!! 나 잘하고 있는데!!!



신나는 아띠반 미술시간





거의 하루종일 페인팅 반 유스들과 함께 그리다보니 페인팅 반 유스들과 언제보다 많이,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가 부탁한 일에 우리보다 유스들이 더 많이 애써준 것 같아서 유스들에게 많이 고마웠던 하루였다. 페인트를 칠하면 칠할 수록 우리 힘만으로는 그리기 어려웠겠구나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페인트를 보고 색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색을 만들어쓰기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스들이 흰색 페인트만 하나 더 들고와 벽화에 필요한 모든 색을 만들어 쓰는 걸 보고 역시 페인팅 반!이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복 색종이 접기

처음엔 마을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 온 한복 색종이. 그러나 아이들이 접어보기엔 만드는 법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페인팅 반에 놀러가 같이 접어봤다. 그런데.. 너무 잘 접는다!



우리가 한 번 접어볼 때에 한참을 헤맸던 부분도 이렇게 저렇게 접어보더니 금세 접어 버렸다. 비록 한글로 쓰인 설명이라 읽을 순 없었지만 그림을 보면서 척척 접었다. 가끔 접다가 막히거나 순서를 잘못 본 경우에만 우뚝이 알려줬다. 우뚝과 페인팅 반 유스들은 그렇게 한나절을 한복 색종이에 빠져 시간을 보냈다. 정말이지 설명을 읽고 우리가 접은 것보다 더 깔끔하게 접어 만든 한복을 보면 이건 재능인건가..



ATTI CLASS



English

Meut Laor





Meut Lao

English



영어 수업이 아쉽게 끝이 났다. 영어 초급반의 주된 학생들이었던 CD반 유스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유스들에게 수업을 들으라고 재촉하고 싶지 않았기에 점점 학생이 줄더니 한 명도 오지 않아 수업을 끝낼 수 밖에 없었다.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뒤로 빠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앞서 주도했더라면 최소 9월에서 11월 세 달은 꾸준히 수업을 할 수 있었을 걸 하는 후회가 남는다. 비록 제대로 수업이 되었던 건 11월 한 달이었지만 그 한 달은 참 딱한 한 달이었던 것 같다. 계획을 짜고 혹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마주치면서 올때?(이해했어요?)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수업이 잘 진행된 날이면 저녁을 먹으면서 괜히 뿌듯하고



처음 칭찬들은 아이처럼 괜히 나 혼자 설레했고,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못한 날이면 같이 수업에 들어왔던 다솔이에게 어떤 점이 문제 였는지 묻기도 하고 기분도 쳐지고 그랬던 것 같다.

유스들과 먼저 친해지지 못하고 티쳐 혹은 네끄루(선생님)으로밖에 남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친해지길 바랐는데 노력의 부재로 수업을 통해서도 많이 가까워지지 못했던 것 같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무도 지루하지 않고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의 이해도가 같진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수업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최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수업을 진행했으나 이미 다 이해한 친구에게는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것 같다. 수업이 어렵진 않은지 알기 위해 눈을 맞추고 지루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눈 맞춤과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나에게 당신이 이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걸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게 되었다. 당신이 소중하기에 좀 더 즐거워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걸 알아갔으면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어 수업은 나에게도 그렇게 큰 충족감을 줬던 것 같다. 수업에 와 주고, 나와 눈을 마주치고 올때(이해했어요)라고 말해주는 행위가 내가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마주치고 올때?(이해했어요?)라고 묻는 것과 결국 같은 걸 말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짧긴 했지만 한 달의 영어 수업은 단지 영어 수업 그 이상으로 나에게 남을 것 같다.





ATTI CLASS





그림 그리기

저번 달처럼 우리는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들고 나갔다. 그림 그리는 건 언제나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연령대가 다양한 아이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 몇몇 아이들은 알아서 그림을 그리고 몇몇 아이들은 우리에게 그림을 주문한다.(끊임없이!) 그 중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치경. 바로 자전거다. 뽀냐는 이제 자전거 하나는 자신있다고 하지만 잔뜨리아는 자전거를 잘 그리지 못하는 관계로 꽃을 그려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끊임없는 연꽃 주문을 받았다. 자전거와 연꽃 모두 아이들이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생각해보면, 결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아이들의 주위에 있는 것들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달의 고민끝에 색을 칠할 수 있는 영어공부자료들을 함께 준비해갔다. 그림과 영어단어가 함께 있는 자료였다. 아이들을 모아 수업의 형태로 진행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는 그냥 자료를 나눠주고 한 번씩 읽어주고 따라하도록 유도했다.



정말.. 부끄러울만큼 못 그린 그림들이지만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





아이들은 사진찍히고 사진찍는 걸 참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항상 카메라를 달라고 떼를 쓴다. 떨어트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걱정때문에 아이들에게 안 줄 수는 없다. 카메라보다 훨씬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카메라를 주면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우리 사진을 찍어준다. 깔끔하고 예쁜 사진보다 나는 이렇게 조금 정신없고 조금 흔들린 사진이 더 좋다. 아이들의 시선이 담겨서 좋다.





“이욘!!!”

오빠들이 언젠가부터 운동을 하지 않게 된 건 이 귀여운 아이들과 놀아주기 시작하고나서부터일까.. [이욘 : 크메르어, 업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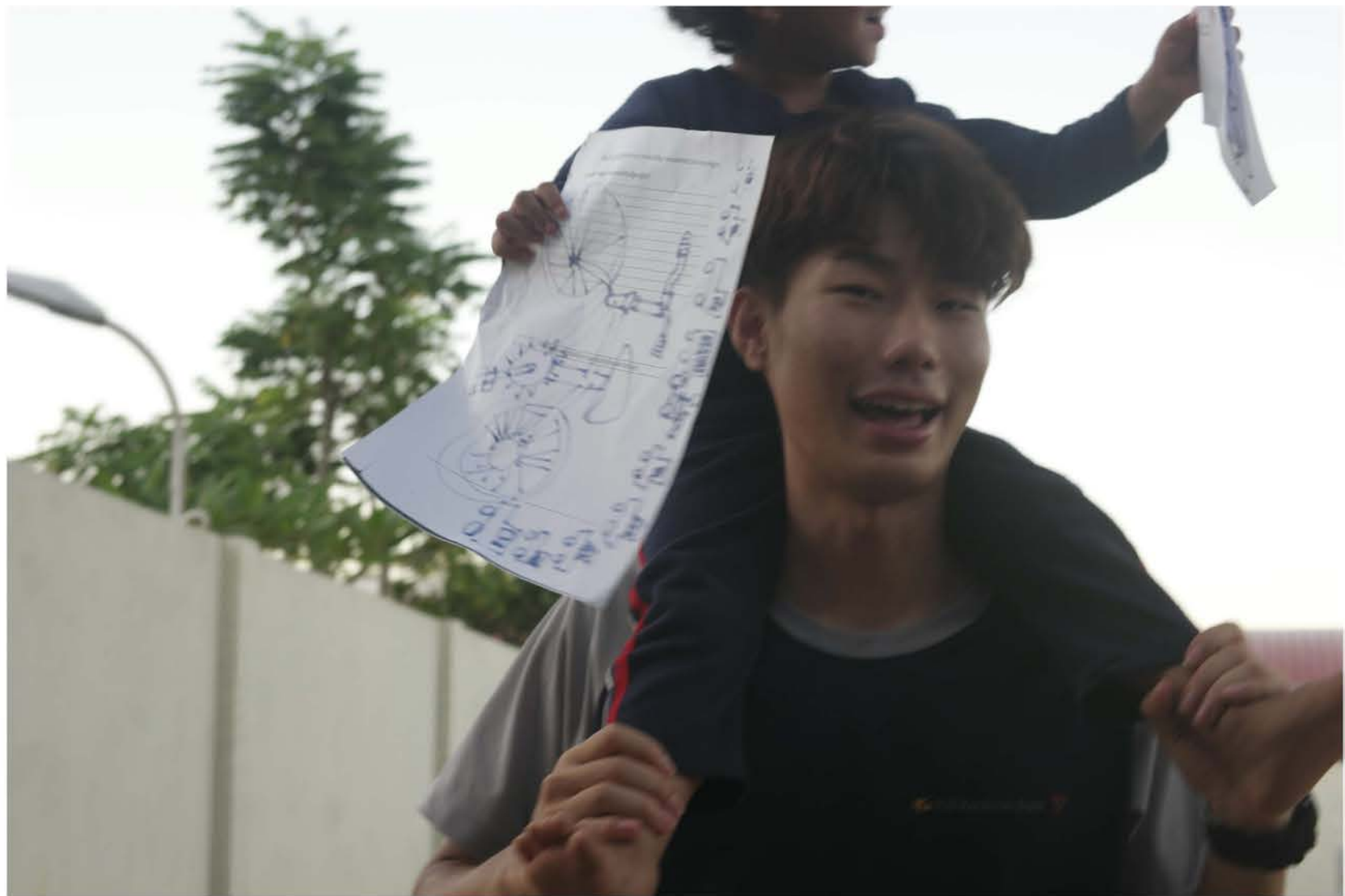


종이비행기 날리기



뭘 하고 놀아줄까, 뭘 하고 놀아줘야 우리가 가도 아이들끼리 놀 수 있을까 어떤 놀이가 안전할까, 뭐가 재밌을까??

마을아이들과 수업(놀러가기) 전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다. 오늘은 뭘 하고 놀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다 무엇보다 자주 보이는 비행기 인데도 볼 때마다 우리보고 같이 보라고 “쳐! 유힬!!”라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비행기를 접어보기로 했다. 사실 저번 달에 한 번 시도했다가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건 실패했지만 그때 아이들 나이가 많이 어렸으므로 다시 한 번! 다행히 이번엔 어떻게 접는지 알려주는데까진 못했지만 한바탕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재밌게 놀았다. 그러다 아이들은 사진 속 대문 안으로 종이비행기를 다 날려버렸다...



물론, 그림 그리기도 같이 하고 놀았다. :)



아이들은 가식이 없다.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 나는 보통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조금은 가식적인 웃음과, 과장된 몸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호감이고 싶고, 정말 친해지고 싶어.' 아이들은 우리를 보며 먼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보이며 달려 오기도 했고, 나와 달리 가식적으로 웃어 보이지도 않았다. 자기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은 까먹지도 않고 몇 날 몇 일이고 우리에게 와서 말하며 해 달라고 무작정 떼를 쓰기도 하고, 관심없는 것에는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눈길도 안 준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다.

센터에 유스들, 스텝들, 이웃 어른들과 얘기를 할 때,, 어쩔 때는, 지칠 때가 있다. '내가 이걸 부탁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너무 실례인건가, 우리를 너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 죄송하다, 나는 정말 상관없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가끔 찾아온다.

자기가 그려 달라는 걸 안 그려준다고 나한테 구박을 하기도 하고, 캄보디아 말을 잘 못한다고 놀리기도 하고, 내가 힘들든 말든 그냥 무작정 업어 달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저 멀리서 부터 소리질러 인사하고, '부, 밍(아저씨, 아줌마)'이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긴다.

나는 눈치보지 않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이 너무 편하다.

Meut Laor







공놀이



우덤과 왓따나의 고품격 발레수업







종이접기

종이비행기에 탄력을 받아 우리는 미리 한국에서 사 온 한복색종이를 꺼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접어보고 가지 못한 탓에 가위와 풀이 필요한지도, 한복을 접기가 그렇게 어려운지도 몰랐다. 그래서 결국 한복은 접지 못하고 같이 동봉된 일반 색종이들로 아이들과 놀았다.

종이접는 걸 몇 개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자! 라고 했지만 따로 찾아보지 못한 탓에 우리가 접을 줄 아는 종이접기가 몇 개 없었다. 그래서 기억을 짜내고 짜내서 몇 개 접고있는데 지나가던 유스 디쿰이 무려 연꽃을 접어주고 갔다. 그리고 색종이를 가져간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다. 종이접기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배워온 것 같다.





구슬치기

마을아이들 수업때 쓸 만한 것들을 사러 간 가게에서 우연히 구슬을 발견했다. 그래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구슬을 하나씩 나눠줬다. 그러자 아이들은 알듯말듯한 규칙을 가진 구슬치기 놀이를 하고 놀았다.



아이들 중엔 한글이나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나눠주기도 했다.

한 명씩 이름을 한글로 써서 나눠주고 읽어주면 아이들은 재밌어하면서 직접 따라써보기도 했다.





딱지치기

이것도 사실 한 번 야심차게 들고 나갔으나 아이들 나이대가 어려 아이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이번엔 완성해둔 딱지 몇 개와 딱지 접을 종이를 여러 장 준비해서 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보여줄 시간도 없이 딱지 접을 종이를 한 장씩 달라고 했고 우리는 정신없는 새 나눠주고 말았다. 그렇게 두 번째 딱지치기도 가지고 놀 수 없었다. 대신 영어 그리기 자료와 숫자나 알파벳을 이어 모양을 만드는 자료들로 색을 칠하거나 그리고 놀았다.







딱지치기

딱지치기를 알려주기 위해 아이들을 일부러 집중시키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우린 다시 딱지를 들고 나갔다. 우리가 하는 게 재밌어보이면 같이 놀다가 접는 법도 알려달라고 하겠지, 싶어서. 그런데 오늘은 딱지를 다 날리고 놀았다.. 그래서 딱 한 번, 자 봐봐~하고 어떻게 하는 지 보여줬다. 이내 잘 따라하더니 이 날도 결국 몸으로 놀아줬다.





인형 만들기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아줄 지 고민을 하다 찾은 인형 만들기. 처음엔 양말 인형 만들기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주고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프놈펜과 프싸 따끄마에 나가 천도 사고 바늘과 실, 솜도 구하고 양말도 사서 직접 만들어봤다. 짠뜨리아와 반냐가 하나씩 만들고 지쳐 양말인형은 그 이후로 다시 만들지 못했지만 바느질에 흥미를 붙인 반냐는 짠뜨리아를 고용해 누가 봐도 바나나라고 우기는 바나나 인형과 하트 쿠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간 이후로도 잘 가지고 놀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CDP, 그리고 아토제나 캠프 회의를 하면서 이번 달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CDP에 나갔다 오거나 회의를 마치면 지쳐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 상태로 바로 아이들 수업을 나가다보니 처음처럼 잘 놀아주지도, 뭘 할지 준비를 잘 해가지도 못했던 것 같다. 놀러 나가면 항상 예쁜 아이들이기에 나도 웃게 되고 그만큼 기분도 왕창 좋아지긴 하지만 뭔가 '오늘 수업은 준비를 너무 못했어. 부족했어.'하는 생각이 들곤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또 그냥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고 아이들이 내 이름으로 장난치는 걸 받아주고 사진찍고 무지무지 예뻐해준 것들만 생각하면 내가 매번 나갔던 활동들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하고 속상해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마을 아이들 수업에서 꼭 뭔가를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하루 잘 놀았다, 싶으면 된 건가 싶기도 하다.





COOKING CLASS

마지막 쿠킹 클래스의 주인공은 바로 떡꼬치! 까리따스에 남은 유스들도 없는 탓에 우리는 마지막 쿠킹 클래스를 마을을 대상으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마을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쉽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생각하다 나온 의견이 떡꼬치였다.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날짜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12월의 마지막 주가 청소년캠프 회의와 유스 송별회, CDP 등으로 바빠 시간이 나질 않았다. 게다가 적은 재료가 필요하지만 하필 집에 고추장이 떨어지고 근처 마트나 시장에 고추장이 없어 프놈펜까지 나가야 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쿠킹 클래스는 해를 넘겨 1월 2일에 하고야 말았다. 그래도 마을을 돌면서 새해 인사 겸 아이들과 어른 분들에게 한국 음식이라고 소개하며 집집마다 몇 개씩 나눠드렸다. 어른분들도 잘 드시고 아이들은 매워하면서도 맛있게 잘 먹어줘서 기분좋은 마지막 쿠킹 클래스였다.



<신나는 떡꼬치 만들기>

항상 웃으며 반겨주셔서,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해요:)



1. 딱딱한 떡이 말랑해지도록 물에 살짝 데쳐 줍니다.



2.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꼬지에 떡을 4개씩 예쁘게 꽂아줍니다.
갓 꺼낸 떡은 상당히 뜨거우니까 손 조심!



3.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요리당, 설탕, 케첩, 물, 다진 마늘을 넣고
고루고루 잘 섞어 줍니다.



4. 기름을 적당히 두르고 떡을 살짝 구워줍니다.
“뜨거워서 집게를 썼는데 왜 집게가 제일 뜨거워지는 거지?”



5. 양념을 구워진 떡 앞뒤, 사이사이로
골고루 발라줍니다.



끝~!

A woman in a patterned sari is seen from the back, looking towards a group of people in a dimly lit room. The group consists of men and women, some standing and some sitting on blue plastic chairs. The scene is captured in a cinematic style with low lighting.

Goodbye, Phirum



2015년 12월 14일. 깐달 까리따스에서 7년동안 일했던, YDP의 책임자이자 라온 아띠를 맡았던 우리의 캄보디아어 선생님 피룸이 까리따스를 떠난 날이다.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장난을 쳐주고 환하게 웃어준 피룸이 까리따스를 떠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 까리따스를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귀를 의심했다. 피룸이 떠난다니! 농담삼아 피룸이 떠나면 울 거라고 말을 하면 피룸은 울지 말라고 지금의 이별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말해주며 끝까지 환하게 웃어줬다.

보통 스태프분들의 송별회를 하면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 가서 했다. 하지만 피룸은 유스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송별회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들었다. 덕분에 우리도 유스도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었고 피룸과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유스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지막 날을 보내는 걸 보면서 피룸이 유스들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다.

‘웃으며 안녕’ 나에겐 이별 혹은 ‘마지막 날’이 힘들거나 슬프거나 미안한 일이었다. 하지만 피룸을 보며 피룸의 송별회를 함께 하며 즐거운 마지막 날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즐거운 마지막 날이었기에 내일 봐요!라고 농담삼아 인사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







파고다 나들이

페트라가 주말에 집으로 영영 간다고 했다.
그리고 이 다음 주면 시험치러 오지만 시험을 치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다.
마침 유스들이 파고다로 놀러간다고 했고 우리는 유스들과 함께 두 번째 파고다 나들이를 했다.



Merry Christmas!



프사 트마이를 가다

With Dany & Petra

Meut La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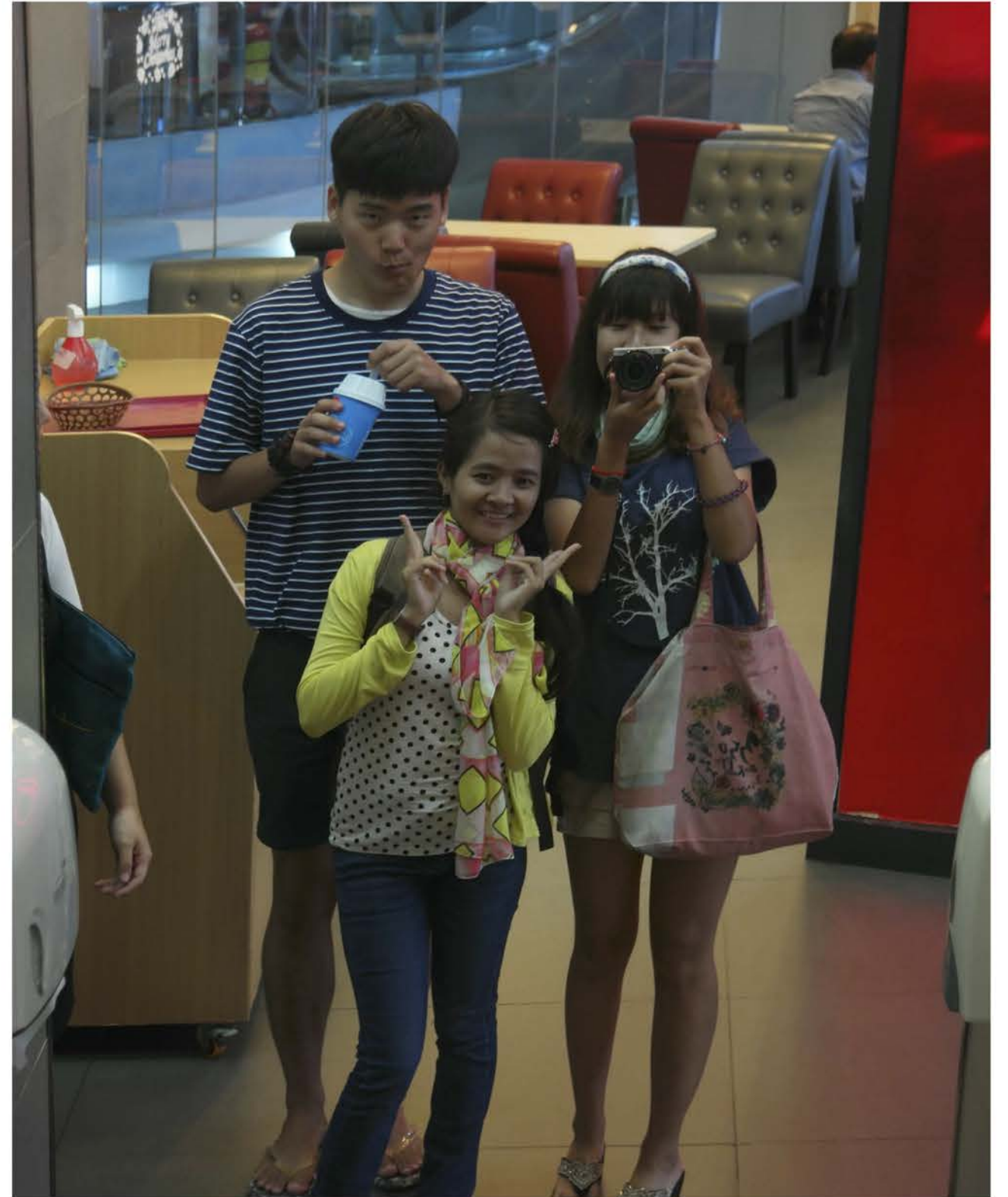


나래와 짠뜨리아가 즐겨입는 치마를 본 난리, 어느 날 우릴 붙잡고 물어봤다.
나도 이 치마 사고 싶어! 어디서 산 거야?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프사 트마이로 함께 치마를 사러 가기로 했다. 페트라도 같이!:)



우리는 치마도 사고 프싸 트마이도 둘러보고 건너편 백화점에서 아이쇼핑도 하고 맛난 것도 사 먹었다.





BYEBYE, FRIENDS :)





일 자리를 찾아 까리따스를 잠시 떠났던 모든 유스들이 다시 까리따스로 돌아왔다!

떠난 유스들에게 잘 가란 한마디조차 하지 못해 정말 졸업식같은 행사는 없는 건지, 다 모이는 일이 없는 건지 아쉬워하고 있는 아띠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12월 29일,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 졸업시험이 있어 까리따스의 모든 유스들이 까리따스로 모인다는 소식이였다. 그리고 그 전날부터 하나 둘 보고싶었던 얼굴들이 까리따스로 모였다. 정말 오랜만에 까리따스의 아침이 사진을 찍고 인사를 하는 유스들로 북적였다.







유스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 29일이 아쉬웠던 짠뜨리아는 유스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었다. 그저 마지막 날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걸 해야 너무 방해는 안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우덤이 유스들에게 나눠줄 사진들을 까리따스 곳곳에 전시해두고 가져갈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유스들이 시험을 칠 동안 우리는 사진들을 여기저기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Meut Laor



유스들과 가까운 식당으로 함께 점심도 먹으러 갔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엔 아무리 선선해진 캄보디아라지만 뜨거운 땀약별을 피할 수 없었다.
바나나 잎을 떼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스카프 하나를 넓게 펼쳐 비를 막듯 햇빛을 막으며
까리따스로 돌아왔다.





웬 케이크야? 누구 생일이야?

케이크 두 개를 들고 지나가자 탄이 물어봤다. 누군가의 생일은 아니었다.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웠던 우리가 준비한 작은 이벤트랄까, 선물이랄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항상 웃어줬던 유스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까리따스에서의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진 못하지만 분위기라도 내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케이크를 유스들과 나눠먹고 얼굴에 묻히고 사진을 찍으면서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우리는 점심에 이어
유스들끼리 저녁을 먹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함께 따라나섰다.







아직도 유스들을 까리따스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항상 그렇듯이 웃으면서 잘가!하고 인사했고 내일 까리따스에 가면 다시 놀 수 있을 것 같다. 섭섭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는 날이었다. 또 유스들이랑 다같이 밥먹고 놀고 싶다.

시엠립에서 본 이후로 처음 만나 더 반가웠던 Srey Neang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참 잘해~”를 연발하게 하는 똑부러지는 Srey Neang :)



헛 떼 ㅠ

Tired ㅠ

대다 ㅠ

#14. 라온아띠, 몸을 써 먹다.

12월의 CDP 활동은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원하던 직접 몸으로 일 하는 활동이었다. 그동안 날씨, 까리따스와 농부님들의 스케줄 등의 이유로 우리는 제대로 몸을 쓰는 노동 다운 노동을 한번도 하지 못했었다. 매번 농사를 짓는 현장으로 나가서 몸 쓰는 일은 안 하고 돌아오니 직접적으로 농부님들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었다.

살이 까맣게 타고, 땀냄새 풍기고, 몸이 쭈시고, 물집이 잡혀도 속 시원하고, 뿌듯하고, 고마워 해주시던 농부님 가족분들께 오히려 우리가 감사했다.

한 핵심농부님의 텃밭에서 땅 갈기를 시작으로 씨를 뿌리고 비료를 준비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단계, 단계 직접 옆에서 도우며 함께 해보았다

땅 갈기





고랑 만들기



씨 뿌리기



살충제 뿌리기



낮 시간의 시골 마을에는 우리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다들 프놈펜이나 근처 공장으로 일 하러들 간다고 한다. CDP 스태프인 썸낭씨는 정부의 가난한 농촌 가정의 복지를 생각하고 농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말 한다. 그로 인해 갈수록 땅이 있는 농촌 가정에서도 농사에 전념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져 아쉽다고 하셨다.

농사를 지어 달마다 바로바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장에서 받는 최저임금의 수입에 비해 농사를 지어 얻는 수입이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당장의 현실에서 까리따스 CDP 프로그램과 같은 NGO의 역할이 더 필요하고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료 만들기



벼짚 덮기



끝



CDP 활동 기간 중 라온아띠 10기의 김은지 씨가 친구 일행과 함께 까리따스에 방문했다. 라온아띠 활동을 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다시 캄보디아를 떠올리고, 까리따스를 떠올리고, 같이 일 했던 마을을 떠올리는 것이 좋아 보였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반가워해주는 까리따스 스탭들과 마을의 가족들이 있다는 게 부러웠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해 준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



라온아띠 10기가 CDP 활동을 했던 한 농부님 댁에 방문하게 됐다. 버섯 농사를 꽤 크게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중이었다. 농부님께서 이미 라온아띠를 경험해 보셔서 인지 먼저 우리에게 다가 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해주셨다. 그리고는 여기에 자기 이름 하나씩 써서 사진 한 장 찍고 가라고 우리를 리드하셨다. 우리는 처음 뵈는 분들이었는데도 같은 라온아띠라고 하니 다들 반가워 해주셔서 감사했다.



3주 후 ...



또
다
른

어느 날의

C
D
P





중간평가를 하면서 동화간사님께 CDP활동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의 존재가 농부님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아도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면 된다고 하셨다. 조급해하는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안도할 수 있었고 어렵פות이 간사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느 때처럼 썸남의 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오는 날에 맞춰 일거리를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가는 날마다 비가 와서 농사일이 계속 미뤄졌고 그래서 손해를 보신 분도 있다는 듯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번 달까지 일손을 돕고싶다는 나의 생각이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농부님을 돕고 싶어했던 것은 농부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안도를 위해서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도움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품이 좋다. 사실 처음 농부님의 집을 갔을 때, 농부님과 가족들을 만나 뵈었을 때, 처음 점심을 같이 먹고 그 곳에서 남는 점심시간을 보냈을 때 참 어색했다. 그런데 지금은 농부님의 집에 들어서는 마을 어귀가 반갑고 오늘은 아이들이 인사를 받아줄까, 생각하며 농부님의 집에 내렸을 때 아이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오늘은 점심메뉴가 뭘지 가마솥 근처를 기웃거리게 되고 점심 때 왜 그렇게 밥을 많이 안 먹냐는 아주머니의 잔소리가 즐겁고 점심 때 해먹을 차지하기 위해 혼자 눈치싸움하는 게 재밌다. 남는 점심시간에 연유커피와 여기서만 파는 과자를 사 먹기 위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탈 법한 자전거를 타고 나서는 길이 파듯하다. 그리고 이번 달, CD반 유스들과 함께 일하면서 너무 많이 친해져서 좋았다. 서툰 농사일이지만 열심히 하면서 농부님과 짧은 크메르어로, 혹은 그냥 웃는 얼굴로 더 자주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



릭 리여이 나 츠남 트마이!

Happy New year!

#15. 라온아띠, 우린 아직 심표

크리스마스, 2016년, 새 해를 함께 했다.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자!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 평소와 똑같은 집에서 하루를 보냈다. 캐롤이라도 틀자! 해서 캐롤을 다운받았지만 캐롤은 절대 틀지 말라는 누군가로 인해 캐롤은 금지곡이 되었다. “그럼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평소같이 보내??” 싶었지만 유스들과 프놈펜으로 놀러간 첫 날이 되었다. 김홍네 집들이에 초대되어 그 날 밤도 떠들썩하게, 푸짐하게 보낼 수 있었다.

2016년 새 해도 보냈다. 크리스마스에도 우리끼리 뭔가 하진 않았잖아, 새해도 그렇게 조용하게 보낼 순 없어, 심지어 아무 계획도 없잖아! 라는 짠뜨리아의 강력한 요구로 2015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경에 네 명은 평상에 모였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2016년을 맞았고 케이크도 먹었다.

2015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2016년을 맞았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우리의 2015년은, 우리의 여름은, 깐달은, 종원, 한길, 나래, 다솔, 우리는 심표,

ကျွန်းကျွန်းစုစု
အသက်အရွယ်အားမရွေး
အမျိုးအနွယ်အားမရွေး
အဘယ့်အတွက်
အတူတူ
အတူတူ
အတူတူ
2015

크 리 스 마 스
초 대
김 흥 네 집 들 이

Meut Laor



김홍네 집들이에 초대를 받았다.

“야 나 이거랑 이거 중에 뭐 입지? 뭐가 더 나아?”

초대받은 자리, 평소와 다르게 말끔하게 하고 30초정도 걸어 가 새 집에 도착했다.



테이블에 앉으니 음식이 끊임없이 나왔다. 처음보는 음식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었다. 캄보디아의 행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정말! 큰 음악이다. 실외인데도 옆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 우리는 이 음악에 맞춰, 집들이에 온 분들과, 우덤, 레아, 김홍의 아버지와 함께 춤을 췄다. 천막까지 치는 집안행사에 초대된 건 이 날이 처음이라 캄보디아의 문화에 서툰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좋은 경험이었다.





어제와 달라 새롭다,

어제와 같아 예쁘다.

- 2016년 1월 1일

종원(Udom)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 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떼처럼

안도현

한가일 (Prannya)

캄보디아에서 내가 배우고 얻게 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나름의 내 한국에서의 5개월을 포기하고 온 낯선 나라에서 당연히 마냥 행복한 시간들만 있지는 않았다. 처음의 패기 넘치는 계획과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생기면 답답했다. 내 개인적인 고민에 너무 빠져 내 옆으로 다가오고 지나가는 관계와 호의들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무뎠을 때도 있다. 원래 내가 있던 환경에서 혼자 동 떨어져 그리워하다보니 그렇게 지긋지긋해 했던 군대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에서 내가 아이들을 꽤나 좋아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 요리가 아주 조금은 것 같고, 분명히 한국이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신선한 생각들을 하게 됐다. 마을을 걸으며 인사하는 마을 이웃들이 생겼다. 까리따스를 알게 되고 YMCA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시아'라는 말이 한 3배는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실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꽤 다양한 표정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항상 사진 속의 내 표정은 어색한 웃음, 무표정, 그리고 한 두어가지 정도뿐이었는데 여기에서의 표정은 조금 더 다양하다. '나한테 이런 표정도 있네?'하는 표정을 몇 개나 새로 발견한다.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얻고 있다.



#1

난 내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5개월 동안 무언가 변할거라고 바랐으나, 나도 내 주변 상황도 하나도 바뀌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스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날, 어딘가 변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나 어려워했던 유스들을 대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항상 유스들과 무슨 말을 나눠야 할까,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하다가 정작 유스들과 함께 나눴던 시간은 적었는데 그냥, 원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옆에 있을 수 있었다. 그저 같이 웃고 아무 것도 아닌 말을 하고 장난을 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라는 생각은 결국 나를 위한 변명이었던 것 같다. 내가 무장해제를 풀자 그제서야 상대방은 내 옆에 서있을 수 있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벽을 만들게 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니 내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 이라는 답을 찾았다. 난 내가 지루한 사람이 될까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무서웠던 것 같다. 사실은 난 지루하기도, 재미있기도, 아무것도 아니기도, 의미 있는 사람이기도 한 데 말이다. 나 자신의 비루한 점까지 보여주는 점이 어렵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을 덜고 나자 그제서야 난 의미있고,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 아니다. 어쩌면 더 좋은 시간을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처음부터 쉬웠던 것보다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이 나 에겐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5개월동안 아주 느리게 느리게 변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에 (Narae)

#2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찰 때가 있다. 상대방의 단점 밖에 보이지 않고, 나도 상대방에게 단점 밖에 보여줄 수 없을 때.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은 이런 때에도 다시 상대방의 장점을 찾고 기쁘게 같이 할 수 있었는데 12월은 그게 되지 않아 답답했다. 사실 아직도 그게 되지 않아 힘들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 말 하기 가장 어렵기도, 가장 쉽기도 하고 내 시야를 가리고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들이다. 좋은 감정들은 쉽게 꺼져버리지만 나쁜 감정들은 오래토록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면 왜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 졌는지까지도 의심하게 된다. 가끔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적이다가도 곧 다시 부딪혀 지쳐버린다. 그리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웅크려 참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행동에서, 말에서 가시가 자란다. 상대방이 나만큼 찢리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워져버린 나를 보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다. 난 원래 이렇게 좁고 고집만 세고,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밖에 나를 보여줄 수 없을 때. 라온아띠를 하면 나의 바닥을 보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난 지금 가장 못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못난 나를 잘 다독여 위로해주고 싶다. 재촉해서 혼을 내고 다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1월달은 아마 이런 나를 안아 품어보려 노력하는 달이 될 것 같다. 그리고 5개월이 끝날 즈음에는 다시 괜찮은, 아니 오히려 더 좋은 내가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솔(Zantrea)



세 번째로 옮겨 쓴다. 뭐 이리 할 말이 많은지 이번 달, 유독 에세이를 쓰기가 힘들다. 내 감정, 내 생각, 나에게 소중한 것들과 나 자신에 대한 반성들로 자꾸만 글이 길어진다.

#

라운아띠는 나에게 사람을 안겨준 것 같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고 언제든 내 인사를 받아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소중한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일, 돈, 환경, 미래, 기타 등등 한국에서 나를 괴롭히던 것들에서 멀어져 사람, 관계, 그 속의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뜨겁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

여기서 새해를 보냈다. 새해를 보내면서 아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다. 똑같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인데 1월 1일 해가 뜨는 것에 사람들은 의미부여를 하곤 한다고. 일상적인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적어도 남은 날동안 똑같은 일상, 똑같은 하늘, 똑같은 우리 식구들에게 처음 온 그 날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겠다.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을 살고 있으니까.

#

식구.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다. 서로를 미워하기도 싸우기도 얼굴만 봐도 웃기기도 조용한 날은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감정들에 종종거리다가도 함께 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들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것 또한 좋다. 아픈 말들은 빼고.

#

5개월이 짧다고 했다. 하지만 낯설기만 했던 우리 집이 편해지고 우리가 가까워지고 이 곳의 생활이 일상이 된 걸 보면 지금까지 보낸 4개월을 짧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앞으로 한동안은 부르지 못할 이름들을 마음껏 소리쳐 부르고 있다. 아이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우리 식구들 이름을 부르고 유스들 이름을 부르고 하늘, 노을을 보며 느끼는 감정들을 입 밖으로 내뱉어보고 있다. 내가 부르고 싶을 때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나의 부름의 대상이 내 앞에 없다는 것이 이따금씩 나를 외롭게 할 것이다. 그때를 위해 지금 많이 부르려고 한다.

#

많이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글을 토해내듯 A4 3쪽을 넘게 썼던 글도 사실 부족했다.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이지 않는다. 잠시 잊었다가도 다시 생각한다. 그렇게 흩어진 생각들을 모으는 게 여기서도 힘든데 이 곳을 떠나서 이 생각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달 뒤에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아직 이 곳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Meut Laor

한국에서 보요 :)

